

尹 “임금·휴가 보상체계 불안 없도록 담보책 강구하라”

수석비서관회의의… ‘보상 없는 장시간 근로’ 반발 여론에 추가 지시
대통령실 “대통령 ‘주 60시간 이상 무리’ 언급, 가이드라인 아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최대 69시간’만 부각되면서 ‘제대로 된 보상 없는 장시간 근로만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 여론이 계속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16~17일 첫 일본 방문 결과를 언급하며 “한일관계 개선 및 협력에 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혼선’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통령의 일관된 메시지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좀 반영해 이 제도를 좀 더 설계하라는 것”이라며 “예전 같았으면 노사정위원회 등 여러 사회적 대화 채널이 있었으면 제도가 더 다듬어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기회가 없었다 보니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주 60시간 이상 무리’ 언급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개편안을 마련하라는 차원의 지시라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개인적 생각에서 말씀한 것이지, (근로시간 개편)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견을 수렴해 60시간이 아니고 더 이상

나올 수도 있다. 캡(상한)을 씌우는 게 적절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굳이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신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논의가 캡도 씌우고 60시간이나 59시간으로 갈 것이라고 미리 예단할 필요가 없다. 윤 대통령 말씀은 장시간 근로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 채 여러 의견을 들으란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이라는 근로시간 개편안 취지를 재차 설명하며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하려 애썼다.

고위 관계자는 “바꾸고자 하는 제도로 가더라도 급격한 장시간 근로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장기적 방향은)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근로시간을 줄여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고용노동부가 임베고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직접 언론 대응에 나선 것은 지난 일주일 사이 6번째다.
고위 관계자는 ‘혼선’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통령의 일관된 메시지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좀 반영해 이 제도를 좀 더 설계하라는 것”이라며 “예전 같았으면 노사정위원회 등 여러 사회적 대화 채널이 있었으면 제도가 더 다듬어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기회가 없었다 보니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문체위 ‘태극기 피켓’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석 노트북에 태극기가 부착된 가운데 개의되고 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는 민주당 의원석 태극기 부착 문제로 정회했다가 의원이 발언할 때만 태극기를 붙이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한 뒤 속개됐다.

민주당 ‘이재명 중심 단결’ 文 발언 해석분분

박지원 “대표 중심 결집”…비명계 “당 변화·화합 독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박용진 의원이 전언 형태로 밝힌 민주당 진로와 관련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당내에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하라는 주문을 내놓았다는 입장인 반면 박 의원은 결단과 변화에 방점을 뒀다고 밝혀 상당한 정치적 해석 차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17일 YTN 라디오에서 “문 전 대통령께서는 ‘현재 민주당이 총단합

해서 잘해야 하는데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지금이 대표 외에 대안도 없으면서…’ 그 정도 얘기를 하셨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 10일 문 대통령을 예방했다.
박 전 원장이 전한 문 전 대통령 메시지가 이 대표를 중심으로 결집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히자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이상민 의원은 20일 SBS 라디오에서 “박 전 원장이 문 전 대통령과 말씀을 나눈 게 있다고 해도

전직 대통령 말씀은 어쨌든 영향력이 크고, 미묘한 문제이니 밖에 이야기할 성질은 아니다”며 “밖에 이야기하면 여러 파장이 일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SNS를 통해 지난 17일 문 전 대통령 예방 사실을 공개한 박용진 의원은 결이 다른 발언을 전했다. 박 의원은 예방 후 페이스북에 “대통령님께 서도 민주당이 조금 달라지고, 뭔가 결단하고 그 결 중심으로 또 화합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내년 총선은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격려해주셨다”고 적었다. 이는 박 전 원장이 전한 “이 대표 중심으로의 결집”과는 거리가 있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쌍특검’ 최후통첩

박홍근 “특검법 법사위서 처리 안되면 패스트트랙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 “내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진전이 없으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내일 법사위까지는 특검법 처리 합의를 위해 인내하며 노력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심사를 거부하고 방해한다면 달리 방도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21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를 특검법의 여야 합의 처리 시한으로 설정하고, 이를 넘기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나설 것이라고 최

후통첩에 나선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열을 전부터 법사위 처리를 요구해왔지만, 국민의힘은 요지부동”이라며 “더 이상 검찰 수사나 국민의힘 선의에 기대 시간을 끄는 것은 사건 무마에 공조하는 꼴이고, 시간만 낭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전히 ‘합의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정의당을 향해서도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에 진짜 의지를 갖고 있다면, 내일 법사위 결과 이후엔 분명한 결단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패스트트랙 동참을 압박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산업단지에 기념관·역사공원 조성 근거 마련

김희재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희재(여수) 국회의원은 20일 기념관·역사공원 조성 등 산업단지의 기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전국산업단지는 총 1264개로, 생산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952조를 기록했으며, 수출도 13.9% 증가한 3359만불을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기념관 설립·공원 조성 등 구체적인 기념사업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산업단지의 경제적 위상에 비해 그



중요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기념관 건립·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을 실시하여 산업단지의 성과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포함했다.
김희재 의원은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산업단지는 대한민국의 심장과도 같다”면서 “산업단지 기념사업을 통해 자랑스러운 산업단지를 만들고, 새롭게 맞이할 100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